

‘흑연전쟁’ 불붙나... “美 업체들, 중국산에 920% 관세 요구”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中업체 보조금 받아 저가 공세 美업체 공정 경쟁 불가 주장... 관세전쟁 미·중 시발점 되나

미국 흑연 생산업체들이 중국 흑연 수출업체들에 92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미국 규제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업체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을 저가에 생산, 수출하는 탓에 이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업체들의 주장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단독 입수한 자료를 인용, 미국 흑연 생산업체들을 대표하는 활성양극재생산자협회가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 등 규제당국 2곳에 중국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업체들은 중국산 흑연에 최대 920%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흑연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5%다. 이 같은 고율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예상되는 관세 전쟁이 미·중 간 흑연 산업에서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을 공언해온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흑연에 대한 관세까지 올리면 미국 내 전기차 생산원이 인상도 불가피해진다.



중전중인 전기차.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에서 부피 기준으로 가장 큰 구성 요소다. 천연 흑연을 채굴할 수도 있고 가공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다.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의 샘 아부엘사미드 애널리스트는 흑연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 비용의 약 10%를 차지한다면

서 흑연 가격이 900% 상승하면 다른 공급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때까지 전체 배터리 제조 비용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금도 미국의 배터리 생산 비용은 중국보다 최소 20% 더 많다.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테슬라도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배터리를 사용하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중국산 흑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로비를 벌여 성공한 바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천연 흑연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중국에 대한 흑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흑연 채굴과 합성 흑연 생산에 더 많은 투자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미국 흑연업계는 중국산 흑연에 대한 추가 조치가 없으면 이런 노력은 무위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원서를 제출한 활성양극재생산자협회의 대변인 역할은 하고 있는 로비스트 에릭 울슨은 “미국 흑연업계가 중국의 악의적인 무역 관행으로 인해 질식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에서 흑연산업이 존재하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의 진입을 막지 않고는 이 산업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년 초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고 관련 상황에 대한 조사가 끝난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트럼프, 취임 전 1월 중순 이시바와 회담 의향 전달”

‘취임후 회담 바람직’ 의견 있지만 이시바 방미 검토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인 내년 1월 중순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에 정식으로 회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의사에 맞춰 이시바 총리가 내년 1월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일본 정부와 여당은 정기 국회 소집일을 1월 21일 전후로 검토하고 있고 이시바 총리의 인도네시아 등 방문도 1월 상순으로 계획하고 있어 1월 중순이던 방미 일정을 잡기 어렵지 않은 시기가.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차분히 논의해 내년 2월 방미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면서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제안을 미일 관계를 중시하는 표시로 환영해 일정 조율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시바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당선

인과 조기 회담을 희망해왔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 2016년 미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을 취임 전에 미국으로 찾아가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만나고 이를 계기로 쌓은 개인적 친분이 밀월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에는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후 미국에 들러 트럼프 당선인과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측은 원칙적으로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과 만나지 않기로 했으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취임 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 가능성에 대해 “그들(일본)이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주택가로 추락한 항공기

지난 18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산페르난도에서 항공기가 착륙 도중 주택가로 추락해 동체가 산산조각나 있다. 이날 헬리콥터 300 항공기 사고로 2명이 숨졌다. /AP·연합뉴스

中 극초음속 드론, 세계최초 비행 후 활주로 착륙에 성공

중국의 극초음속 무인기(드론·사진)가 세계 최초로 비행 후 활주로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해외 군사매체 워존(The War Zone)을 인용해 중국이 최근 극초음속 드론 MD-19 및 MD-21, 코드명 MD-2 등 기종의 최근 테스트 상태를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가운데 MD-19는 초음속 비행을 마친 후 전통적인 활주로에 원활하게 착륙했다.

다른 극초음속 드론은 일회용으로 임무 후 파괴되는데, MD-19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초음속 기술 연구 및 개발에 더 많은 테스트 기회를 제공한다.

MD-19는 유인 항공기와 무인전투기(UCAV) TB-001, 고고도 폭션 등에서 방출돼 비행할 수 있다.

중국 군사 크리에이터 국평시아(國平野)는 “중국 무인 항공기 개발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진정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으며, 많은 국가가 따라 하는 벤치마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음속의 5배 이상인 극초음속 드론은 정찰과 감시는 물론 미사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 하노이 카페 방화로 11명 사망... 50대 범인 체포

직원과 말다툼 후 범행 자백... 7명 구조·2명 부상

베트남 수도 하노이 한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19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하노이 판반동 거리 3층짜리 카페 건물에서 불이 나 최소 11명이 숨

고 2명이 다쳤다.

순식간에 퍼진 불길과 연기가 입구를 막으면서 피해자들이 카페 안에 갇힌 것으로 전해졌다. 열 건물까지 번진 불은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내부 수색에서 시신 11구가 발견됐다.

발코니로 피신한 7명은 구조됐으며, 이 중 2명이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베트남 공안은 방화 용의자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용의자는 맥주를 마시러 이 카페에 갔다가 직원과 말다툼을 벌인 후 1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자백했다. /연합뉴스

60 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SONY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늘어납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